

# KLPGA투어 한 시즌 최다상금 선수는? 2016년 박성현

20개 대회 출전 7승 기록...13억3309만원 획득  
장하나, 역대 최다 상금 획득 총 47억5391만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고 상금 선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시즌 KLPGA 투어는 대회 수 31개, 총상금 284억원, 평균상금 9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KLPGA는 모든 기록을 집대성한 'KLPGA 데이터센터'를 통해 최고 상금 선수들을 발표했다.

한 시즌 최다 상금은 박성현(28)이 차지했다.

KLPGA에서 한 시즌에 가장 상금을 많이 번 선수는 2016년도에 나왔다. 박성현은 그해 총 13억3309만 667원을 받았다.

박성현은 2016년 20개 대회에 출전해 7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두 번의 준우승, 18개 대회에서 컷 통과를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쌓았다. 성공적인 한 해 농사를 지은 박성현은 상금왕을 비롯해 다승왕, 최저타수상, 인기상 등 4관왕에 올라 서며 화려하게 빛났다.

2위는 2014시즌 우승 5회와 준우승 1회를 기록한 김효주(25)가 쌓은 12억897만8590원이다.

당시 김효주는 상금이 큰 메이저 대회(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KB금융 스타챔피언십) 3승과 그해 상금액이 가장 큰 한화금융 클래식 2014(2017년 메이저 대회로 승격) 우승 등 굵직한 대회에서 성과를 냈다. 김효주는 4관왕의 영예도 안았다.

KLPGA에서 지금까지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는 '가을의 여왕' 장하나(29)이다.

장 하나는 2010년부터 드림투어를

포함해 총 11개 시즌을 보내며 정규 투어 트로피 13개를 들어 올렸다. 총 47억5391만46원의 상금을 받아들었다. 장 하나는 5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장 하나는 "지난해 내가 '생애 통산 상금 획득' 1위라는 것을 알았다. 운동선수로서 한국 최고라는 집에 자부심을 느낀다. KLPGA 대회에 참가할 수록 역사도 함께 바뀌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애 통산 상금 획득 2위에 올라있는 선수는 고진영(26)이다.

고진영은 현재까지 33억3606만 8583원을 획득했고, 현재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다. 고진영은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3위는 31억6388만3865원을 획득한 이정민(29)이 차지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상금을 쓸어담고 있는 선수는 최혜진(22)이다.

최혜진은 입회 2개월 12일 만에 4개 대회에서 누적 상금 1억원을 들



박성현



장하나



최혜진

파했고, 그해 12월에 열린 '효성 챔피언십 with SBS'에서 우승하며 상금 2억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다. 획득상금 '26억원' 구간까지 단 '10억원'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휩쓸었다.

2020시즌까지 약 3년 2개월 만에 26억8803만1042원의 상금을 누적인

최혜진이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27억'부터 '32억'까지의 기록을 보유 중인 고진영의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진은 "뭉뚱한 기록이라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 하지만, 특정 기록을 의식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기록이 탄생할 것이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2021시즌에도 '한 시즌 최다 획득 상금', '생애 통산 상금 획득', '통산 최다기간 상금 획득' 등 상금 관련 역대 기록의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스

## “계속 주시하겠다” KIA 윌리엄스 감독, 무명 투수에 약속

입단 4년째 맞은 올해 26살 사이드암 투수 윤중현  
1군과 첫 실전에서 6타자 삼진 2개 깔끔 피칭 눈도장



“계속 주시하겠다”

KIA 타이거즈에 흥미로운 눈길이 투수가 등장했다. 올해 26살의 사이드암 투수 윤중현(26)이다. 광주일고-성균관대 출신이다. 입단 4년째를 맞아 1군 데뷔가 없다. 올해는 육성신분이라 배번도 03번이다. 그런데 1군과의 첫 실전에서 맏 윌리엄스 감독의 눈을 빛나게 했다.

윤중현은 지난 7일 KIA 자체 연습경

기에서 퓨처스 팀의 선발투수로 나서 2이닝을 완벽하게 막았다. 6타자를 상대로 삼진 2개를 곁들였다. 상대타자들이 최원준, 김선빈, 타커, 나지완, 김민식, 김호령 등 1군 주전들이었다. 최원준은 헛스윙 삼진, 김호령은 루킹 삼진을 잡았다.

직구, 커브, 투심, 체인지업 등 4개의 구종을 구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0km. 아직 100%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피드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투심, 커브, 체인지업도 모두 스트라이크존을 맴돌았다. 차분하고 안정된 폼으로 정교한 제구를 과시했다. 깔끔한 피칭이었다.

특히 이날은 1군 선발 임기영과 특급 신인 이의리가 각각 2이닝씩 소화하며 좋은 투구를 했다. 두 투수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그럼에도 무명의 윤중현의 호투를 가린 것은 아니었다. 깜짝 등장에 팬들도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분좋은 출발이었다.

윌리엄스 감독도 8일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의 브리핑에서 윤중현의 질문이 나오자 “커맨드(제구)가 아주 좋았다. 처음부터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했다. 4개의 구종 모두 스트라이크존에 집어넣는 능력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구였다. 아주 좋았다”고 극찬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퓨처스 코치들(서재용, 류택현)에게 물으니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다. 앞으로 성적 등을 포함해 피드백을 받을 것이다. 주시하겠다”는 말도 했다. 투수진 운영의 옵션 명단에 ‘윤중현’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이다. 윤중현은 5월부터 1군 출전이 가능하다.

뉴스스

## 김광현 “좋은 밸런스 찾아...다음 경기 희망 생겼다”

시범경기 두경기 연속 아쉬운 모습...“지난해 잘 던진 이유 생각”

‘KK’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시범경기에서 2경기 연속 부진했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봤다.

김광현은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2021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⅓이닝 6피안타 1볼넷 2탈삼진 4실점으로 부진했다.

시범경기 특별 규정제 따라 1회초 ⅓이닝 만에 강판됐던 김광현은 2회초 다시 마운드에 올라 1⅓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김광현은 올해 시범경기 첫 등판이었던 4일 뉴욕 메츠전에서 ⅓이닝 4피안타 2볼넷 4실점(3자책점)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김광현은 경기 후 “확실히 저번 경

기(3일 메츠전)보다는 밸런스를 찾은 것 같다. 이날이 거듭될수록 지난 시즌의 모습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다”며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번 경기보다 나아졌다는 점에 있어서 다음 경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회초 흔들렸던 이유에 대해 김광현은 “첫 타자의 타구가 파울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어가 되면서 안타를 맞았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를 맞았고, 당황한 것 같다”며 “첫 이닝을 던질 때 마음의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고 되짚었다.

지난해 시범경기 5경기(선발 2경기)에서 9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정규시즌에 8경기(선발 7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62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1회 강판된 후 김광현은 지난 시즌



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2회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아쉽지만 경기 중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김광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똑같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뻔했다.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 좋은 밸런스를 찾았다는 점에서 다음 경기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 프로야구 시범경기 무관중으로 개최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치뤄

2021년 KBO리그 시범경기는 더 안전하게 정규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KBO(총재 정지택)는 10개 구단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 2021 시범경기의 무관중 운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일부터 30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치러지는 2021년 시범경기는 겨우내 야구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새 시즌 KBO 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철저히 대비하고자 관중을 받지 않기로 했다.

각 구단은 경기장에서 관중을 직접

맞이하지는 못하지만 중계방송을 통해 겨우내 맘 흘러 준비한 선수들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KBO와 각 구단은 시범경기 기간 새 시즌의 정상적인 개막 및 정규리그 완주를 목표로 그동안 준비한 방역 상황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안전한 정규시즌 개막 준비에 만전을 기해 개막전 그라운드에서 관중들에게 직접 인사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 임성재 “플레이어스 우승 트로피 꼭 들어보고 싶다”

내일부터 열려...2001년 최경주·2017년 김시우 우승



임성재(23)가 '제5의 메이저대회'라고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임성재는 오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7189야드)에서 열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지난해 3월12일 2라운드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대회 중도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PGA 투어는 약 3개월간 중단됐다.

이 대회는 메이저급 대회로 유명하며, 우승자는 167만4000달러(한화 약 19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2001년 최경주, 2017년 김시우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바 있다. 임성재 역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임성재는 “커리어에서 가장 큰 대회의 우승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자부심을 줄 것 같다. 우승 경쟁

을 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매 대회마다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진 않다. 하지만 꼭 한 번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PGA에서 진행한 임성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취소됐다. 대회에 임하는 소감은.**

“메이저 다음으로 큰 대회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대회이다. 작년에는 취소됐지만 올해는 4라운드 다 열심히 쳐서 좋은 성적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다.”

-**2년 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출원을 했는데.**

“처음 출전해서 출원을 했다. 13번홀이었고 거의 왼쪽에 붙어서, 헤저드에 붙어있는 핀이었다. 그날 예선 통과를 위해서 버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었고, 과감하게 쳐보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샷이 핀으로 잘 갔다. 핀 뒤에 3m 정도 맞고

백스핀이 걸려서 홀킵으로 들어가 홀인원이 됐다.”

-**최경주와 김시우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이 동기부여가 되나.**

“TPC 소그래스에서 한국 선수 2명이 우승을 했다. 그래서 그 코스가 한국 선수들에게 맞는 코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승 경쟁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경주 프로가 우승했을 때는 어렸을 때라, 생중계는 못 봤지만 재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대회의 우승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자부심을 줄 것 같다. 우승 경쟁을 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매 대회마다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진 않다. 하지만 꼭 한 번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고 싶다.”

-**TPC 소그래스만의 특징과 공략 방법은.**

“TPC 소그래스는 페어웨이가 좁고 벙커도 많다. 티샷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린 주변에 헤저드도 워낙 많기 때문에 티샷을 신중히 쳐야 하고, 그린 주변 헤저드도 잘 보고 쳐야 한다. 안전하게 쳐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17번홀이 보기엔 짧지만 핀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부담이 많이 된다. 17번 아일랜드 홀에서는 욕심 내지 않고 가운데로만 올려도 충분히 파는 할 수 있다. 그런 작전으로 치면 큰 무리 없이 좋은 스코어 낼 수 있다.”

뉴스스